

##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박 윤 환\*

### A Study 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the Poor and Foreign Population: A Case Study of Seoul Metropolitan City

Yoonhwan Park\*

**요약 :** 사회가 점점 더 다원화되고 이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루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산층 붕괴로 야기된 빈부격차의 심화 및 계층 간 불평등과 급격한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로 인하여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가 어떠한 공간적 패턴을 갖는지는 빈곤과 이민의 문제가 가져올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이슈들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은 2006년과 2009년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인구와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거주지분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이지수와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하였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역지수는 물론 25개 자치구들에 대한 거주지분리도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역지수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가 빈곤층의 거주지분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빈곤층의 거주지분리는 다소 완화된 데 비해서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는 점점 심화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들에 대한 경제적, 인종적 소수집단들의 거주지분리를 살펴본 결과 자치구들 간 편차가 상당히 존재하였고 소지역 간 거주지분리의 공간적 차이는 거주지분리 측정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나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과 거주지분리 정도는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남서부 외국인 밀집 지역과 서울 중심부에서 동부지역에 걸쳐 거주지분리가 상대적으로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빈곤,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 상이지수

**ABSTRACT :** As a society gets more diverse and heterogeneous, it is likely to confront difficulties in handling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To this end, South Korea has recently experienced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and inequality between social and economic classes has been rising. As a result, poverty concentration and residential segregation are becoming topical policy issues, particularly in regard to developing systematic and long-term anti-poverty and immigration policies.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it is necessary for scholarly efforts to identify the spatial variation of disadvantaged minority groups' residential area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the poor who are protected b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of the foreign population, resi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E-mail: ypark@kgu.ac.kr, Tel: 031-249-9323

data that come from the end of 2006 and 2009.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foreign residents appears more severe tha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the poor. For the past 3 years,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the poor has been mitigated whereas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has got worse. The present study also confirms significant deviation of residential segregation between sub-regions of the city. However, the pattern of spatial variation tended to differ by types of segregation index.

**Key Words** : Poverty, Foreign Population, Residential Segregation, Dissimilarity Index

## I. 서론

빈곤과 이민은 선진국의 토대를 닦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최우선 순위의 정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민 문화를 개방한 많은 나라들에서 빈곤정책은 곧바로 이민자 지원정책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빈곤층과 이민 계층은 주류 계층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비교적 값싼 주거지를 찾아 특정 지역에 주거군집(residential clustering)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문적 영역에서도 두 정책 이슈들은 동시에 유기적으로 다루어지고 분석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개발과 사회변혁의 시기를 경험해왔고 소위 “잘살아 보세”를 외쳤던 절대적 빈곤에서의 탈출은 시대적 소망이었다.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일반 국민들 상당수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8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빈곤은 지속되었고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수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빈곤의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는 빈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서울 변두리 도심 곳곳에는 판잣집 달동네들이 들어서며 집단 취락촌을 형성하였다. 비록 도시빈곤의 외형적 양상은 두드러져 보였지만 이 시기는 계층이동의 역동성도 공존했던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

게 진행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계층구조 양극화는 빈곤층을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7~2004년 노동패널(KLIPS) 자료를 토대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를 분석한 신동균(2007)의 연구에 따르면 양극화지수(Esteban-Ray: ER지수)가 1997년 0.05에서 2004년 0.1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계층구조 양극화의 심화를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의 공간적 측면에서도 각종 도심재개발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한 빈곤층이 그나마 최저생활을 간신히 영위할 수 있었던 기존 주거지에서부터 격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빈민들은 도심 곳곳에 위치한 무허가 불량주택, 영구공공임대아파트, 서민 동네 단독주택의 지하나 옥탑방, 혹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물리적으로 보다 다양한 주거지역들에 모여서 살고 있다(김수현 외, 2009). 비록 표면적으로는 빈곤층들의 거주공간이 다양해진 것 같지만 빈곤층의 공간적 집중현상은 실질적으로 완화되기보다는 변형되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발적 거주지분리(voluntary segregation)가 사라져서 빈곤층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급격한 증가는 기존 한국사회가 지녔던 전통적, 동질적 가치와 시스템들을 변화시키면서 소위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과 국제결혼 이주민 집단은 모두 경제적 목적 때문에 유입된 인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외국인 주민들도 빈곤층과 마찬가지로 주거의 공간적 집중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집단의 경우 일하고 있는 사업체 인근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55만 2천 9백여 명이 있는데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무려 68.8%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들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집중도보다는 조금 낮지만 서울(23.2%), 경기(27.7%), 인천(6.0%) 등으로 56.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의 거주지 집중과 분리 현상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사회공간의 양극화(socio-spatial polarization)를 발생시켜서 사회 전체의 통합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동현·임업, 2010). 따라서 빈곤정책과 이민정책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의 공간적 패턴을 함께 분석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다.

과연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지는 지리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인 수도권 서울에서 이 두 집단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모여서 살고 있는가? 두 집단은 비슷한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유사한 패턴의 거주지분리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2006년과 2009년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인가와 외국인 주민 거주지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

가했던 외국인 주민 숫자에 비추어볼 때 향후 외국인 주민 거주지의 공간적 패턴이 빈곤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일 것인지를 예측해보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는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몇 가지 중요한 분리지수들을 사용해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것이다. 두 집단 사이의 거주지분리 정도는 전통적으로 거주지 분리지수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온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의 장점을 살리고 공간적인 특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고 평가받는 Wong(1993)의 수정된 상이지수를 이용하여 수도권 빈곤층 및 외국인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다. 이와 함께 복수집단들에 대한 거주지분리 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상이지수에다가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서 발전한 엔트로피지수(entropy index)를 통해 빈곤층 내국인, 빈곤층 내국인,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지 다양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주민 수의 급증에 따른 거주지분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6년과 2009년의 거주지 분리 현황과 추세를 비교하기 위하여 지도그리기(mapping)를 통해 시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서울시 빈곤층 인가와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 현황을 다음 장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거주지분리에 대한 이론 및 측정에 관한 논의를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그다음 장에서는 2006년과 2009년의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인가와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 정도를 거주지분리지수들을 이용해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과 연구가 지닌 한계 및 논점들에 관한 토론으로 상기 연구를 매듭짓고자 한다.

## II. 서울시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 현황

빈곤층의 거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빈곤층에 해당하는 인구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곧 빈곤율을 측정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 빈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하고 공표하는 지표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들이 사용된다. 먼저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중요하다.<sup>1)</sup>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최저생계비를 결정 및 공표하는데 절대적 빈곤은 바로 정부가 선을 긋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정부는 OECD기준인 중위소득 50%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을 빈곤의 기준으로 본다.<sup>2)</sup>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빈곤율 지표들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의 빈곤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소득과 같이 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변수들이 지리적으로 작은 단위로 자료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시적 지역 단위의 소득 관련 자료들의 부재는 지역 빈곤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현주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거

주지분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입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정부가 사용하는 빈곤율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차선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자료를 이용해서 전체 빈곤층(정부발표 빈곤율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 중에서도 극빈곤층의 거주지분리 정도와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sup>3)</sup>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등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를 의미한다. 물론 이 같은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수급자 선정기준이나 최저생계비 기준 등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증감에 따른 빈곤층의 규모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에 따른 빈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소지역 빈곤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변수(proxy)로서 차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총 156만 9천여 명으로 총인구 대비 비율인 수급률은 3.2%에 이른다. 그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대략 50만 명 정도로 전체 수급자 수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1>은 2010년 기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및 수급률을 보여준다.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노원구로 수급률이 3.72%에 이르고 있으며 수급자 절대수도 2만 3천 명에 육박해 가

1)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다.

2)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은 11.5%, 상대적 빈곤율은 15.1%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3) 정부가 발표하는 빈곤율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빈곤층에는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공공부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하위 빈곤집단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극빈곤층의 복지의존적 경향은 하위계층(underclass)의 출현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신동면, 2001). 우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가 빈곤층의 복지의존성을 높이고 하위계층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가정할 때 본 연구에서 빈곤층의 개념은 하위계층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장 많다. 수급률 기준으로 그 뒤를 이어서 강서구(3.38%), 금천구(3.15%), 강북구(3.09%), 중구(2.92%) 순으로 극빈곤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적인 서울시 평균은 2.07%의 수급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총 25개 자치구들 중에서 1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서울시 평균 이상의 수급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이들 11개 상위 수급률 지역들 중에서 서부의 세 지역(강서, 금천, 영등포)들만 한강 이남지역이고 그 외 8개 지역들이 모두 한강 이북지역에 몰려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2010년 펴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개념을 “90일 초과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의 범주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 국적 미취득 등록외국인은 물론 혼인귀화자 등 국

적취득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용어 확립은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주민의 거주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1년 외국인 주민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은 총 126만 5천여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이전 연도 대비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 수의 뚜렷한 증가현상은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져서 전체 외국인의 64.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9%에 이르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 2만 명이 넘는 외국인 다수 거주 기초자치단체들은 총 4개로 영등포구(50,531명), 구로구(37,359명), 관악구(24,848명), 금천구(24,740명) 등 네 곳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2>는 2010년 서울시 자치구들의 외국인 주민

<표 1> 2010년 서울시 자치구 기초생활수급자 수 및 수급률

(단위: 명, %)

순위	자치구	수급자 수	수급률	순위	자치구	수급자 수	수급률
1	노원	22,719	3.72	14	서대문	5,880	1.81
2	강서	19,396	3.38	15	용산	4,398	1.80
3	금천	7,722	3.15	16	마포	6,985	1.78
4	강북	10,707	3.09	17	강남	9,974	1.75
5	중	3,885	2.92	18	동작	6,559	1.63
6	은평	12,787	2.62	19	구로	6,768	1.60
7	중랑	10,804	2.53	20	양천	7,898	1.58
8	동대문	9,054	2.47	21	강동	7,163	1.46
9	종로	3,960	2.32	22	광진	5,355	1.43
10	영등포	9,226	2.27	23	도봉	5,106	1.39
11	성북	10,153	2.08	24	송파	6,773	0.99
12	관악	11,012	2.07	25	서초	2,944	0.68
13	성동	6,254	2.02	합계	서울시	213,482	2.07

수와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무려 12.42%의 외국인 주민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금천구가 10.09%, 구로구가 8.82%, 중구가 8.00%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전체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3.55%였고 서울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외국인 주민 비율을 보인 자치구는 총 11개였는데 한강 이남에 위치한 자치구가 5개, 이북에 위치한 자치구가 6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남서부 지역의 상위 3개 자치단체들(영등포, 금천, 구로)에 무려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살펴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와 강서구가 외국인 주민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난 데 반해서 금천구나 중구는 두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집단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는 시군구 단위에서 전체인구 대비 비율을 이용한 단순한 서술통계 수치는 한계를 갖는다. 사실 어떤 지역에서 빈곤층 혹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다는 것과 이들 소수 집단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즉 단순히 전체인구 대비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들 집단들이 공간적으로 비교적 고르고 균일하게 흩어져서 거주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비율이 높지 않아도 집단적으로 고립되어 거주할 수도 있다. 특히, 중산층 붕괴로 인한 소득계층의 양극화를 경험한 우리의 경우 빈곤층이나 이민인구들의 증가가 뚜렷한 현 시점에서 거주지분리 현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본 연구의 거주지분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최소 공간 단위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표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서울시의 빈곤층 및 외국인 주민집단의 거주지분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표 2〉 2010년 서울시 자치구 외국인 주민 수 및 전체인구 대비 비율

(단위: 명, %)

순위	자치구	외국인 주민 수	비율	순위	자치구	외국인 주민 수	비율
1	영등포	50,531	12.42	14	성북	11,622	2.38
2	금천	24,740	10.09	15	강남	13,181	2.31
3	구로	37,359	8.82	16	서초	9,943	2.29
4	중	10,625	8.00	17	송파	12,736	1.86
5	용산	16,975	6.93	18	강서	10,280	1.79
6	종로	11,624	6.81	19	중랑	7,426	1.74
7	광진	17,643	4.70	20	양천	8,684	1.74
8	관악	24,848	4.68	21	강동	8,183	1.66
9	동대문	16,097	4.39	22	강북	5,446	1.57
10	서대문	12,074	3.72	23	은평	7,636	1.56
11	동작	14,960	3.71	24	도봉	4,129	1.12
12	성동	10,967	3.55	25	노원	6,503	1.06
13	마포	12,067	3.08	합계	서울시	366,279	3.55

### Ⅲ. 거주지분리 이론 및 측정에 대한 논의

#### 1. 빈곤층과 이민인구의 거주지분리 이론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에서나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인종적,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웃하면서 집단적 거주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정수열, 2008). 이처럼 인종적, 사회경제적 소수집단인 빈곤층과 외국인 인구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간적 패턴은 분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지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거주지분리로 초점이 맞춰진다. 19세기 이후 수많은 이민인구들을 받아들였던 전형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결합되면서 도시 빈곤층과 이민계층의 거주지분리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거주지분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특히 20세기 초반 시카고학파로 지칭되었던 도시사회학자들인 Robert Park, Ernest Burgess, Louis Wirth 등은 실제 시카고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도시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인구의 지리적 분포에 주목하였다. 이 중 Burgess(1924)의 연구는 도시의 토지이용의 고전적 이론인 중심지모형(Concentric Model)을 통해서 빈곤층과 이민인구들의 거주지분리 문제를 다루었으며 Wirth(1928)는 급격한 이민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특정 인종의 집단거주지 생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전 도시사회학적 시각은 도시를 도시민의 삶의 양식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는 생태학적 입장을 취했으며 다분히 거주지분리의 개념을 사회계층(social class)과 생활주기(life cycle)와 연계된 공간적 차이의 측면에서 중립적

으로 보았다(Park et al., 1925). 이후 거주지분리 연구의 초점은 점차 거주지분리 현상의 발생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병리적 도시문제들로 옮겨졌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빈곤층이나 이민자집단과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한계적 집단들(marginalized groups)이 거주지와 증가하는 일자리와의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가설이 지지를 받으면서 거주지분리가 매우 심각한 흑인 밀집거주지역의 높은 빈곤율과 범 죄율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거주지분리 이론을 통해서 잘 설명되고 있다(Kain, 1968; Wilson, 1987; Massey and Denton, 1988). 최근의 거주지분리 연구들은 거주지분리의 잠재적 영향력을 비용과 편익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Cutler et al., 2008). 거주지분리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빈곤층과 이민자 집단의 군집주거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 이들 소수집단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결국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거주지분리가 소수집단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유대와 연대감을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경제적 편익을 준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Borjas, 2002; Waldfogel, 2003; Bayer et al., 2008; Cutler et al., 2008). 결국, 자발적인 거주지분리가 이들 이민자 집단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주류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Krivo, 1995).

한편 국내의 빈곤층 및 외국인 인구에 대한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먼저 빈곤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는 공간적으로 미시적 단위에 대한 거주지분리를 측정하거나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대신에 일부 문헌들은 빈곤의 공간적 특성을 전국적 단위로

분석해서 빈곤이 집중된 지역을 살펴보거나(예를 들면, 김중기, 1981; 강우원, 1989; 이현주 외, 2006) 아니면 특정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의 빈곤의 지역적 편차를 조사하여 비교하는(예를 들면, 송영남, 2007; 이상록·백학영, 2008) 시도를 하였다. 이에 반해서 배순석·전성제(2006)의 연구는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입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이지수와 엔트로피지수 등을 이용하여 빈곤층의 거주지분리를 실제로 측정하고 공간적 분리패턴을 연구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지분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물론 훨씬 포괄적인 빈곤의 공간적 구조를 분석한 일련의 국내 연구들은 모두 미시적 공간단위의 빈곤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통계청은 소득이나 지출과 같이 특정 소지역의 빈곤율을 직접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설문조사에서 이들 변수들이 포함되어도 표본수의 부족과 표본추출의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이현주 외, 2006). 결국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지역의 빈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거현황(예를 들면, 배순석·전성제, 2006), 빈곤정책 수급자 현황(예를 들면, 김중기, 1981; 강우원, 1989) 등과 같은 다양한 대리변수(proxy)를 사용하거나 통계청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들을 통해서 얻은 공통변수들을 소득을 추정한 회귀모형에 대입하여 빈곤율을 추정하는 방법(예를 들면, 이현주 외, 2006)을 사용해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층에 대한 거주지분리에 대한 국내 연구는 빈곤층 주거지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그나마 수행되어왔지만 국내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해온 외국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관련 연구들은 외국인 인구의 거주지가 내국인 거주지로부터 고립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식의 구체적인 거주지분리 측정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부분 외국인 인구들의 거주현황이나 거주지의 특징을 단편적으로 설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최재현·강민조(2003)의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거주지의 특징을 국적에 따라 집단취락촌(ethnic enclave)의 형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를 대상으로 한 하성규·고성열(2006)의 사례연구는 외국인 주민집단 중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연구 중에서는 박세훈·정소양(2010)의 연구가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국내 등록외국인의 유형(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따위)과 출신 국적에 따른 기술통계를 지도그리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이들 연구들 모두 거주지분리의 정도를 실제 측정하여 외국인 인구들이 얼마나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주지분리의 지역적 편차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연구들이 외국인 인구에 대한 거주지분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신인철(2007)의 연구는 외국인 인구에 대한 거주지분리지수를 실제로 측정하고 분석한 국내의 최초 연구인데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외국인의 국적 및 유형과 거주지분리 현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하지만 거주지분리 측정의 단위 지역을 시군으로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너무나 거대한 광역 단위 전역지수를 분석했기 때문에 보다 정책적 함의가 큰 소지역적 수준의 거주지분리의 차이나 격차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연구였다. 이에 반해서 박윤환(2010)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수도권 외국인



인구의 거주지분리를 읍면동 분석단위를 이용해서 74개 시군구를 측정하였고 외국인 인구비율 지표와 거주지분리 지표 간에 실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수도권 내에서도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의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였다.

이처럼 빈곤의 공간적 패턴과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패턴을 다루었던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존재하고 있으나 그 어떤 연구도 현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거주지의 공간적 패턴을 빈곤층 거주지의 공간적 패턴과 연계시켜 분석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 이민인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일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비록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집단은 아직까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높은 유사성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새로운 이민인구와 기존 이민인구의 후속세대들의 수가 증가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패턴이 빈곤층의 거주지 패턴과 유사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는 곧 중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집단의 거주지분리 정도를 따로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 집단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거주지분리 측정과 탐색을 위한 방법론

시카고학과 학자들에 의해서 거주지분리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확립된 후 거주지분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였으며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거주지분리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논쟁을 벌여오고 있다. 거주지분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시한 Massey and Denton(1988)은 거주지분리가 일차원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공간적 편차의 5

가지 차원들인 균일성(evenness), 노출성(exposure), 군집성(clustering), 집중성(concentration), 그리고 중심성(centralization)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들 요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대표적인 주요 거주지분리 지수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왔던 것을 그들은 균일성으로 보았다(Massey and Denton, 1988). 균일성을 통해서 거주지분리를 측정했던 지표들 중에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Duncan and Duncan(1955)의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이다. 그들의 상이지수가 본래 지닌 여러 약점들과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다른 거주지분리 지표도 상이지수만큼 효율적으로 거주지분리의 균일성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Wong, 2003). 기본적으로 상이지수란 특정 두 집단들의 거주지 분포가 완벽하게 균일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이상일, 2007).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D = \frac{1}{2} \sum_i \left| \frac{X_i}{X} - \frac{Y_i}{Y} \right|$$

이때  $X_i$ 는  $i$  지역에 거주하는  $X$ 집단의 인구수,  $X$ 는 전체 지역( $i$  지역을 포함하는)에 거주하는  $X$ 집단의 총인구수를 각각 의미하며 같은 방식으로  $Y_i$ 는  $i$  지역에 거주하는  $Y$ 집단의 인구수를,  $Y$ 는 전체 지역( $i$  지역을 포함하는)에 거주하는  $Y$ 집단의 총인구수를 의미한다. 결국 우변 절댓치안의 좌측은  $i$  지역에 거주하는  $X$ 집단의 인구가 전체  $X$ 집단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우측은  $i$  지역에 거주하는  $Y$ 집단의 인구가 전체  $Y$ 집단 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론적으로 상이지수의 최댓값은 1이며 이때 두 집단의 거주지는 완전하게 분리되고(complete segregation) 반대로 상이지수의 최솟값은 0이고 이때 두 집단의 거주지는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complete integration)인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상이지수를 해석할 때 대체로 0.3보다 낮으면 거주지분리 정도가 낮다고 보며 0.6보다 크면 높은 수준의 거주지분리가 있다고 해석하는데(최은영, 2003) 미국의 2000년 센서스통계 기준으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종별 상이지수는 0.41(아시안), 0.44(히스패닉), 0.60(흑인)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Frey and Myers, 2002). 균일성을 측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서의 상이지수가 갖는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상이지수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왔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비판은 상이지수가 공간적 특성(spatial characteristics)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배타적으로 두 집단들의 인구가 100% 완벽하게 분리되어 다수의 소지역 단위 공간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할 때 전체적으로 각 집단들의 배타적 거주지 단위가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지 군집되어 있는지가 상이지수 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sup>4)</sup>

이처럼 상이지수가 갖는 불공간성(aspatial)의 한계와 기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이 고안한 수많은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제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지표는 전통적인 상이지수의 공간적 변형지수인

Wong(1993)의  $D(w)$  지수이다. 거주지분리의 정도가 인구 집단들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의 강도에 달려 있다는 전제하에 지역들 간의 공유된 경계의 길이를 공간적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한다(Wong, 1993). 이에 따라 공유하는 경계들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집단들이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수정된 상이지수를 제안하는데 이것이  $D(w)$  지수이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D(w) = D - \frac{1}{2} \sum_i \sum_j w_{ij} |Z_i - Z_j|$$

Wong의 수정된 지수에서  $D$ 는 상이지수를,  $Z_i$ 는  $i$ 번째 공간단위 내에서의 특정 집단의 비중을,  $Z_j$ 는  $i$ 와 공간적으로 인접한 공간단위에서의 특정 집단의 비중을 각각 대표한다. 또한 우변의 공간가중행렬( $w_{ij}$ )은 지역  $i$ 와  $j$ 의 공통 경계의 길이가 전체 경계의 길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D(w)$  지수의 사용을 통해서 집단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간적 요인으로 공통된 경계의 길이(the length of sharing boundaries)라는 변수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형적(irregular) 형태를 가진 경계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측정하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Wong, 1993).

전술한 상이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거주지분리 지수들은 이분법적인 측정치로서 특정 소수집단

4) 이 문제는 White(1983)가 소개한 '체커보드 문제'(Checkerboard problem)로서 상이지수는 하위 지역단위에서 집단의 구성비율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인구 구성이 상이한 소지역들의 공간적 인접성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초구, 종로구, 마포구 등 지역의 인구가 100% 외국인인 경우나 동일하게 100% 외국인들만 거주하는 지역이 서초구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작구와 강남구인 경우가 모두 전통적인 상이지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에 대한 거주지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균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상이지수 못지않게 많은 연구들에서 다집단(multi-group) 거주지분리 측정을 위해서 폭넓게 사용했던 것은 Theil(1972)에 의해서 정의된 정보이론지수(information theory index), 소위 엔트로피지수(entropy index)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엔트로피지수는 한 지역 단위(unit)의 집단 비율과 시스템 전체(개별적 지역 단위를 포함하는)의 집단 비율과의 평균적인 차이(average difference)의 측정치라고 설명할 수 있다(Iceland, 2004). 같은 맥락으로 Reardon and Firebaugh(2002)는 엔트로피 지수를 시스템의 다양성과 시스템의 전체 다양성의 파편으로 표현되는 개별적 단위들의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적인 다양성(weighted average diversity)과의 차이(difference)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엔트로피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시스템 전체의 다양성(diversity)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점수(entropy score)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 = \sum_{r=1}^r (\Pi_r) \ln \left( \frac{1}{\Pi_r} \right)$$

여기에서  $\Pi_r$ 은 시스템 전체 인구에서 특정 집단의 비율을 의미하고 모든 로그 계산은 자연로그를 이용한다. 이러한 엔트로피 점수는 전체 시스템에서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어서 그 값이 커질수록 지역은 보다 더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Iceland, 2004). 이러한 시스템 전체의 엔트로피

점수와 함께 하위 단위(unit) 지역의 다양성, 즉 엔트로피 점수도 지표산출을 위해서 필요하고 수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E_i = \sum_{r=1}^r (\Pi_{ri}) \ln \left( \frac{1}{\Pi_{ri}} \right)$$

시스템 엔트로피 점수와 유사하게  $\Pi_{ri}$ 는 지역 단위  $i$ 의 인구에서 특정 집단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이미 도출한 시스템 전체와 지역 단위의 엔트로피 점수들을 이용하여 다집단들에 대한 거주지분리를 측정하는 최종적인 엔트로피 지표(entropy index)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H = \sum_{i=1}^n \left[ \frac{t_i(E - E_i)}{ET} \right]$$

수식에서  $t_i$ 는 단위 지역  $i$ 의 인구수,  $T$ 는 전체 시스템의 인구수,  $n$ 은 단위 지역들의 숫자, 마지막으로  $E_i$ 와  $E$ 는 단위 지역  $i$ 와 시스템 전체의 다양성(즉 엔트로피)을 일컫는다. 엔트로피지수는 상이지수와 유사하게 0~1의 값의 범위를 갖는데 모든 지역들이 전체 시스템에 걸쳐서 동일한 조합(composition)을 갖게 되면 최솟값 0을, 모든 지역들이 한 집단만을 갖고 있으면 최댓값 1을 갖는다. 한편 Iceland(2002)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미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종별 다집단들에 대한 실제 거주지분리 엔트로피지수의 값의 평균이 0.25 정도로 나타났다.<sup>5)</sup> 엔트로피지수 외에도

5) 지역적으로 전통적으로 거주지분리가 심했던 중서부 지역(Midwest)이 0.31인 데 반해서 서부 지역(West)은 0.17로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서부 지역의 엔트로피지수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인종 이민국가인 미국의 거주지분리가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0.17에 근접한 측정치가 나온다면 거주지분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집단에 대한 거주지분리를 측정하는 일반화된 상이지수(generalized dissimilarity index), 지니 지수(Gini index), 상대적 다양성 지수(index of relative diversity) 등 다양한 지표들이 꾸준히 개발되어왔다. 하지만 Reardon and Firebaugh (2002)는 엔트로피 지수가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분명하게 우월한 거주지분리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거주지분리 측정지표들을 살펴보았지만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단일 지표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최은영, 2003; 신인철, 2007).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인구와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를 기본적인 두 집단 간의 이분법적 측정과 다집단 거주지분리의 측정을 동시에 시도하기 위해서 Wong의 수정된 상이지수와 Theil의 엔트로피지수를 사용했다는 점을 밝힌다.

#### IV. 분석 결과와 해석

본 연구는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인구와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측정 지표로 거주지분리의 핵심적 특성인 균일성(evenness)을 가장 효율적으로 측정한다고 평가받을 뿐더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와 엔트로피지

수(entropy index)를 채택한다. 하지만 상이지수의 경우 전통적 상이지수가 갖는 물공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Wong의 상이지수를 사용한다.<sup>6)</sup> 기본적으로 상이지수는 두 집단 간의 거주지분리를 측정하며 엔트로피지수는 다집단(multi-group)에 대한 거주지분리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서울특별시가 공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통계』로 두 가지 모두 동 단위를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다.<sup>7)</sup> 시간적 범위는 현 연구시점에서 정부가 공개를 해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2006~2009년 중에서 가장 이른 2006년과 가장 늦은 2009년 자료들을 이용하였으며 수집기준월은 연말인 12월 기준이다.<sup>8)</sup> 지리적으로는 2008년에 실시되었던 서울특별시 동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2006년과 2009년 자료들 사이의 지리적 단위의 불일치 문제 때문에 2006년 자료를 2009년 기준에 따라서 구역설정을 다시 하여 거주지분리 측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공간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들을 모두 지리정보 자료(shape파일)로 만들었으며 동 단위를 단위지역(unit areal)으로 설정하고 상위의 시스템지역으로 자치구나 특별시 수준의 전역지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측정과정을 위해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ArcView 9.3.1과 Geoda 0.9.-i

6) 실제 박윤환(2010)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상이지수와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상이지수들을 사용해서 거주지분리를 측정할 결과 측정치들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지는 않았고 약 0.01~0.03 정도의 값이 보정되는 수준이다.

7) 자료 출처는 서울특별시는 서울통계 웹사이트(<http://stat.seoul.go.kr/>)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계의 경우 일부 자치구들의 2006년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직접 해당 자치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에는 일부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0.77% 정도로 서울시의 경우 대략 1600여 명 정도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동단위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소수 인구를 배타적으로 빈곤층이나 외국인 주민 집단에 자의적으로 할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 인구를 감안했을 때 분리지수 측정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외국인 주민 인구에 대한 자료는 신속한 업데이트로 2011년 현재 자료도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대한 동 단위 자료는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가 2009년이라서 시간적 범위가 한정되었다.

와 Segregation Analyzer 등이었다.<sup>9)</sup>

먼저 <표 3>은 2006년과 2009년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역지수로 빈곤층 및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를 측정한 2집단 상이지수 및 다집단 분리를 측정한 엔트로피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09년 주류집단인 비빈곤층 내국인에 대한 빈곤층의 상이지수는 0.29, 외국인 주민의 상이지수는 0.45로 각각 나타나서 주류집단 거주지에 대해서 빈곤층보다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간의 상이지수는 0.50에 이르러서 오히려 비빈곤층 내국인 집단보다 빈곤층 집단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지분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이주해온 이민 인구들이 빈곤층들의 거주지역과 중첩되는 경향을 보이는 서구국가들의 예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빈곤층 거주지 자체가 비빈곤층 내국인 거주지로부터 상대적으로 심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외국인 주민들이 빈곤층 주거지로 이동하는 데 특정 진입 장벽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역지수로

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인구통계에서 야기되는 역동성을 설명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보다 공간적으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2집단 상이지수들의 2009년 측정치들을 2006년 수치들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비빈곤층 내국인은 물론 빈곤층에 대해서 모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상이지수 값이 상승하였다. 이는 3년간 소폭이지만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가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비빈곤층 내국인에 대한 빈곤층의 상이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주지분리가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 거주지분리 측정의 경우 2006년에 비해서 2009년 엔트로피지수가 소폭 증가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 가지 측정대상 집단들의 거주 다양성이 다소 줄어들어서 거주지분리가 좀 더 심화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서울시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광역화된 거대도시이기 때문에 거주지분리의 지리적 격차와 공간적 패턴의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5개 행정관할 지역으로 나누어진 자치구들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서울시의 자치구들은 단순히 행정기관 관할구역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동일생활권 및 지역

<표 3> 서울시 전체의 두 집단 및 다집단 거주지분리 측정 결과<sup>10)</sup>

	2006	2009
2집단 상이지수: 내국인 - 외국인	0.42	0.45
2집단 상이지수: 내국인 - 빈곤층	0.31	0.29
2집단 상이지수: 빈곤층 - 외국인	0.49	0.50
다집단 다양성(엔트로피) 지수	0.10	0.11

9) Segregation Analyzer는 SAREL(Spatial Analysis and Regional Economic Laboratory)가 개발한 C# 응용프로그램으로 지리정보 자료 파일인 shape파일을 이용해서 42가지 다양한 거주지분리 지수들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이다.

10) 표에서 내국인은 비빈곤층 내국인을 의미하며 빈곤층은 빈곤층 내국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국인, 외국인, 빈곤층은 상호배타적 집단의 개념이다.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들 사이에 나타나는 거주지분리의 격차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서울시 전체의 빈곤층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거주지분리 정도를 측정한 <표 3>과는 달리 <표 4>와 <표 5>는 2009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단위의 거주지분리지수에 대한 간략한 요약통계와 거주지분리 정도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4>는 각 분리지수 유형별 최댓값과 최솟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집단 내국인-외국인 간의 상이지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이 0.52와 0.14로 그 차이가 무려 0.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집단 내국인-빈곤층 간의 상이지수도 역시 최댓값과 최솟값의 격차가 무려 0.43에 이르렀고 2집단 빈곤층-외국인 간의 상이지수의 경우 0.38의 차이를 보였다. 다집단 간의 다양성을 측정한 다집단 엔트로피지수도 최댓값이 0.16인데 최솟값은 0.02에 불과하여 2집단 상이지수의 경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상당한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25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로 거주지분리에 있어 상당 수준의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2009년 서울시 자치구단위 거주지분리지수의 요약통계<sup>1)</sup>

내용	2집단 내국인-외국인	2집단 내국인-빈곤층	2집단 빈곤층-외국인	다집단 엔트로피
최댓값	0.52(구로)	0.51(강서)	0.64(강서)	0.16(구로)
최솟값	0.14(서초)	0.08(금천)	0.26(은평)	0.02(은평)
평균	0.34	0.24	0.38	0.07
표준편차	0.09	0.11	0.11	0.03

<표 5> 2009년 2집단 및 다집단 거주지분리 상위 10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현황

순위	2집단 내국인-외국인	2집단 내국인-빈곤층	2집단 빈곤층-외국인	다집단 엔트로피
1	구로(0.52)	강서(0.51)	강서(0.64)	구로(0.16)
2	중(0.46)	강남(0.47)	강남(0.64)	강서(0.14)
3	광진(0.45)	서초(0.37)	노원(0.51)	중(0.11)
4	노원(0.43)	송파(0.35)	관악(0.48)	영등포(0.11)
5	강남(0.43)	노원(0.32)	서대문(0.46)	강남(0.10)
6	관악(0.42)	구로(0.31)	중(0.45)	광진(0.09)
7	서대문(0.41)	영등포(0.30)	송파(0.44)	송파(0.08)
8	송파(0.41)	양천(0.29)	강북(0.40)	금천(0.08)
9	금천(0.39)	강동(0.27)	용산(0.39)	종로(0.08)
10	영등포(0.39)	도봉(0.26)	동작(0.39)	노원(0.07)

11) <표 4>에서의 평균은 분리지수 유형별로 25개 기초자치단체들 각각의 측정값들을 모두 합하여 자치구 수로 나눈 값으로 <표 3>의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역지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어서 <표 5>를 살펴보면 먼저 비빈곤층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거주지분리는 구로구가 0.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중구(0.46), 광진구(0.45), 노원구(0.43), 강남구(0.4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순위는 먼저 살펴보았던 외국인 주민비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등포, 금천, 구로, 중구, 용산구 등 외국인 주민비율이 가장 높은 5개 지역 중 구로구와 중구는 거주지분리도 높게 나타났지만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상대적으로 거주지분리의 정도가 낮았다. 거주지분리 순위에서 3~5위를 차지한 광진구, 노원구, 강남구는 오히려 외국인 주민 비율이 평균을 밑돌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의 인구비율이 높다고 자동적으로 거주지분리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인구비율이 낮을 때 거주지분리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국인과 빈곤층에 대한 거주지분리의 경우 강서구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0.51의 상이지수를 보여줬고 그다음으로 강남구(0.47), 서초구(0.37), 송파구(0.35), 노원구(0.3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주민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강서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소위 강남 3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절대수와 비율은 평균 이하였지만 비빈곤층과 빈곤층의 거주지분리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국인-빈곤층 거주지분리 6, 7위를 기록한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내국인-외국인 거주지분리지수도 높은 편이라서 경제적,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거주지분리가 모두 심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표 4>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체 2위로 매우 높은 금천구는 내국인과 빈곤층에 대한 거주지분리가 최하(0.08)로 거주지분리 정도가 매우 낮아서 빈곤층들이 비빈곤층 내국인들과 지리적으로 섞여서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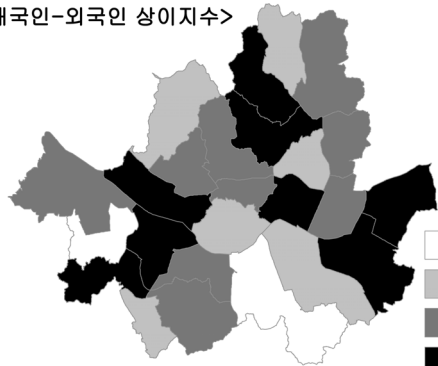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간의 거주지분리의 경우 강서구(0.64)와 강남구(0.64)가 가장 높은 거주지분리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노원구(0.51), 관악구(0.48), 서대문구(0.46) 등이 뒤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선두인 강서구와 강남구의 경우 비빈곤층 내국인과 빈곤층 간의 거주지분리도 역시 가장 높았던 지역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 두 지역은 내·외국인 집단 모두에 대해서 빈곤층의 거주지분리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간의 거주지분리에서의 핵심은 거주지분리 정도가 낮은 지역들이다. 두 집단들 간의 배타적 거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주지 분리가 낮은 지역들에서 향후 이민과 빈곤 정책문제들이 공간적으로 중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빈곤층-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가 가장 낮은 5개 지역들은 순서대로 은평구(0.26), 강동구(0.26), 도봉구(0.27), 동대문구(0.27), 종로구(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울의 외국인 인구 집중 지역인 영등포(0.30), 금천(0.35), 구로(0.38) 등 서남 3구도 빈곤층-외국인 거주지분리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들에서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지가 유사한 공간적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집단들의 다양성을 측정한 다집단 엔트로피지수의 경우 세 집단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구로구(0.16)로 나타났고 이어서 강서구(0.14), 중구(0.11), 영등포구(0.11), 강남구(0.10)의 순서였다. 구로구의 측정치인 0.16은 미국 서부지역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다인종집단에 대한 엔트로피지수 측정치인 0.17에 거의 근접하는 결과로 거주지분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보았던 2집단 사이의 상이지수가 높게 나타났던 지역들이 대부분 엔트로피지수도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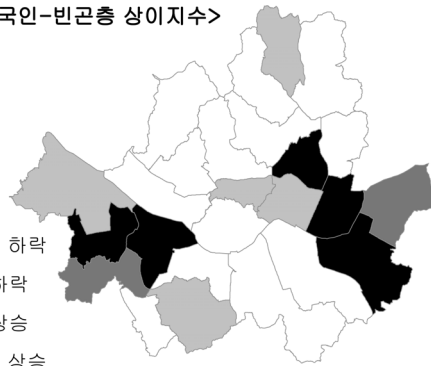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난 3년간 거주지분리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공간적 패턴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1>은 이를 네 가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각 지도는 본 연구가 측정한 2집단 간 상이지수와 다집단 엔트로피지수가 2006년에 비해서 2009년에 자치구별로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설명한다. 가장 짙은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거주지분리지수가 3년 사이에 10% 이상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거주지분리가 매우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3년 사이에 10%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거주지분리지수가 증가해서 거주

지분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옅은 색으로 채워진 지역은 3년간 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주지분리지수가 오히려 감소해서 거주지분리 정도가 완화된 지역이며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거주지분리지수 값들이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여 거주지분리가 지난 3년간 매우 완화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좌측 위아래 두 지도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막론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의 거주지분리는 강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비빈곤층 내국인과 빈곤층 간의 거주지분리는 일부 동부 지역과 서부 외국인 집중 지역을 제외하고 같은 기간 전반적으로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간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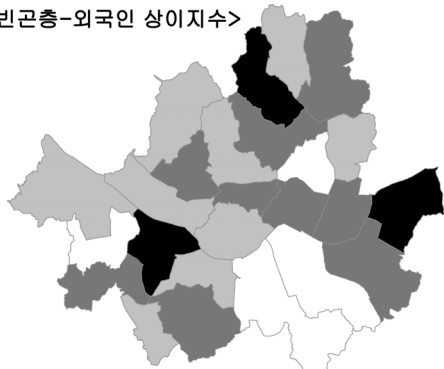
<내국인-외국인 상이지수>



<내국인-빈곤층 상이지수>



<빈곤층-외국인 상이지수>



<다집단 다양성 엔트로피>



<그림 1> 2006~2009년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거주지분리지수 증감 현황



주지분리는 일부 지역들에서 심화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완화된 지역들도 많았고 비빈곤층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거주지분리의 변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변화 강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다집단 거주지 다양성을 살펴보는 엔트로피지수의 경우 서남부 지역과 서울 중심에서 동부 지역에 걸쳐서 거주지분리 현상의 심화가 뚜렷한데 반해서 일부 강북 및 서북부 지역과 강남 지역은 오히려 거주지분리 심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다수의 지역들에서 외국인 주민과 빈곤층들에 대한 거주지분리가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남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토론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 선행연구들이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그 공간적 패턴과 시간적 추세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비빈곤층 내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가 빈곤층의 거주지분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거주지 패턴의 유사성이 예상되는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집단 간의 거주지분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두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을 거주지의 공간적 동질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2006~2009년까지 3년간 비빈곤층 내국인에 대해서 빈곤층의 거주지분리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비빈곤층 내국인에 대한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는 계속 심화되고 있었고 세 집단 모두에 대한 거주지분리는 약간 더 심화되었다. 서울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거주지분리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영등포, 금천, 구로 등 남서 3개 자치구들 중에서 구로구만 외국인의 거주지분리가 높았고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거주지분리가 낮았다. 하지만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낮은 광진구, 노원구, 강남구는 오히려 거주지분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인구비율과 거주지분리 정도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빈곤층 내국인에 대한 빈곤층의 거주지분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모두 높은 강서구와 노원구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낮은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오히려 거주지분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빈곤층 인구의 절대비율과 거주지분리 정도가 다소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다. 한편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내국인에 대한 빈곤층 및 외국인 주민 모두의 거주지분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거주지분리가 낮았던 금천구는 빈곤층의 거주지분리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바로 인접해 있는 소지역들에서도 경제적·인종적 소수집단 주거지의 공간적 양상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했던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간의 거주지분리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거주지분리가 높게 나온 것과는 달리 외국인 밀집 지역인 남서 3구들에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일부 특정 지역은 빈곤층과 이민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빈곤의 공간적 집중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의 거주지분리의 변화를 지역 간의 편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비빈곤층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의 거주지분리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심화되었지만 비빈곤층 내국인과 빈곤층 간의 거주지분리는 오히려 많은 지역들에

서 완화되었다.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간 거주지 분리는 지역에 따라서 심화되기도 혹은 완화되기도 해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서 다집단 거주지분리의 경우 남서부 외국인 밀집 지역과 서울 중심에서 동부 지역에 걸쳐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넘게 진행되어왔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빈곤과 이민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정책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석틀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해결방안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거주지분리라는 공간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거주지분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꾸준히 이민인구가 유입되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상당수 민족국가들은 근래 경제침체로 인한 빈곤층 인구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봉착해왔으며 극단적인 폭동사태들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빈곤과 이민을 통해 생성된 소외 계층들이 경험하는 극심한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복지재정 삭감, 인종차별 등에서 기인했으며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인종적 소수 집단들의 거주지분리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특정 소지역에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서 거주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혹은 자발적 거주지분리로 인해 획득 가능한 편익들로 오히려 소수 집단들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거주지분리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변변한 연구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단위의 거주지분리를 측정하고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학문적 노력은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진전된 빈곤정책과 이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지분리로 인하여 관련 정부정책들의 대상 집단들(target groups)이 거주지분리를 통해 공간적으로 한정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지, 만약 이러한 현상이 비효율적이고 비용을 수반한다면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중첩될 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대응 등이 앞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자치구에 따라서 집단들 간의 거주지분리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도시빈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복지, 주택, 교육을 망라하는 도시정책들이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선별되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한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이용하여 빈곤층 집단을 표적화함으로써 소지역 단위에서 정부통계를 기초로 한 빈곤율에 해당하는 인구수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실적으로 소지역단위 빈곤율을 획득할 수 없는 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 자료나 이에 준하는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통계청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집단의 거주지분리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6년과 2009년을 비교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그 기간의 차이가 너무 짧은다는 점이다. 거주

지의 공간적 분포의 심화 정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적 간격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형이 다른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 하위 집단들의 거주지분리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 집단이나 결혼이민자 집단 등의 외국인 주민 유형을 나누어서 거주지분리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 3% 정도에도 미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우선은 전체적인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를 살펴본 후에 보다 구체적인 하위 집단들의 거주지분리에 대한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출신국가 기준으로 현재 외국인 주민의 절반 이상이 재중동포인 조선족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출신 조선족을 별도로 분리하여 거주지분리 패턴을 빈곤층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주지분리지수들이 갖는 한계이다. 상이지수와 엔트로피지수는 다양한 거주지분리의 특성들 중에서 균일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군집성 등 좀 더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서 거주지분리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를 통해서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를 실제로 측정하고 현황과 추세를 공간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후속연구는 자료 획득이 가능하다면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시간적 범위도 늘려서 경제적, 인종적 소수집단 거주지분리의 현황을 보다 동태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거주지분리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력을 분석해서 관련된 정책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등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우원, 1989, “우리나라 빈곤인구의 공간적 분포연구”, 『산경논총』, 11: 211~247,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 김동현·임업, 2010, “인적자본의 거주지 분리에 관한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 『지역연구』, 26(2): 41~53.
- 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한국의 가난』, 서울: 한올아카데미.
- 김중기, 1981, “우리나라 영세민의 지역적 분포 특성과 원인”, 『한국개발연구』, 95~99.
- 박세훈·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59~76.
- 박운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429~453.
- 배순석·전성제, 2006,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입지현황과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51: 191~206.
- 송영남, 2007, “지역간 빈곤격차의 변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1): 17~38.
- 신동균, 2007,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학연구』, 55(4): 503~548.
- 신동면, 2001,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근로연계 복지를 향하여”, 『한국행정학보』, 35(1): 53~68.
- 신인철, 2007,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지 분리: 경기도 및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007년도 후기학술대회 논문집』, 37~62.
- 이상록·백학영, 2008, “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 편차 분석: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205~230.
- 이상일, 2007,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I): 공간 분리성 측도의 개발”, 『대한지리학회지』, 42(4): 616~631.
- 이현주·김미곤·노대명·강석훈·손병돈·유진영·임완섭, 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최은영, 2003, “거주지 분리 연구의 비공간적 전통을 넘어: 공간지수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7: 23~35.
- 최재현·강민조, 2003,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문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17~30.

- 하성규 · 고성열, 2006,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4(1): 9~3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10년 빈곤통계연보』.
-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외국인 주민 현황분석』.
- Bayer, P., Ross, S. L. and Topa, G., 2006, “Place of work and place of residence: Informal hiring networks and labor market outcom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6): 1150~1196.
- Borjas, G. J., 2002, “Homeownership in the immigrant popul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3): 448~476.
- Burgess, E. W., 1924, “The growth of the city: an introduction to a research project”, *Th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8: 85~97.
- Cutler, D. M., Glaeser, E. L. and Vigdor, J. L., 2008, “When are ghettos bad? Lessons from immigrant segreg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3: 759~774.
- Duncan, O. D. and Duncan, B., 1955,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segregation index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 210~217.
- Frey, W. H. and Myers, D., 2002, *Neighborhood Segregation in Single-Race and Multirace America: A Census 2000 Study of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FannieMae Foundation Working Paper.
- Iceland, J., 2002, “Beyond Bland and White: Metropolitan Residential Segregation in Multi-Ethnic America”,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etings, Chicago, Illinois, Aug. 16~19, 2002.
- \_\_\_\_\_, 2004, “The Multigroup Entropy Index(Also Known as Theil's H or the Information Theory Index)”, U.S. Census Bureau, Retrieved Jan. 25, 2011 ([http://www.census.gov/hhes/www/housing/housing\\_patterns/multigroup\\_entropy.pdf](http://www.census.gov/hhes/www/housing/housing_patterns/multigroup_entropy.pdf)).
- Kain, J. F., 1968, “Housing Segregation, Negro Employment, and Metropolitan Decentraliz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2): 175~197.
- Krivo, L. J., 1995, “Immigrant characteristics and Hispanic-Anglo housing inequality”, *Demography*, 32(4): 599~615.
- Massey, D. S. and Denton, N. A.,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281~315.
- Park, R., McKenzie, R. D. and Burgess, E., 1925, *The City: Suggestions for the Study of Human Nature in the Urban Enviro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ardon, S. F. and Firebaugh, G., 2002, “Measures of Multigroup Segregation”, *Sociological Methodology*, 32(1): 33~67.
- Theil, H., 1972, *Statistical Decomposition Analysi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Waldfoegel, J., 2003, “Preference externalities: An empirical study of who benefits whom in differentiated-product markets”, *RAND Journal of Economics*, 34: 557~568.
- White, M. J., 1983, “The measurement of spatial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5): 1008~1018.
-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rth, L., 1928, *The Ghetto*,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ng, D., 1993, “Spatial Indices of Segregation”, *Urban Studies*, 30(3): 559~572.
- \_\_\_\_\_, 2003, “Spatial decomposition of segregation indices: A framework toward measuring segregation at multiple levels”, *Geographical Analysis*, 35(3): 179~194.

원 고 접 수 일 : 2011년 9월 5일  
1차심사완료일 : 2011년 10월 12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1년 10월 24일